

재일코리안이 바라본 광주민주화 운동

- 희곡 <광명이여! 소생하라(光よ!甦れ)>를 중심으로 -

주 혜 정*

(e-mail : makdongii@hanmail.net)

<목 차>

- | | |
|---------------------|----------------------------|
| 1. 머리말 | 3. '기록'으로서 희곡 <광명이여! 소생하라> |
| 2. 광주민주화운동을 다룬 연극 | 3.1. 고찬유 희곡과 잡지 『세카이』 |
| 2.1. 한국의 광주민주화운동 연극 | 3.2. <광명이여! 소생하라>에 나타난 |
| 2.2. 일본의 광주민주화운동 연극 | 역사의 기록 |
| | 4. <광명이여! 소생하라>의 공연과 그 의미 |

キーワード：在日コリアン(Korea residents in Japan), 光州民主化運動(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高賛侑(Kochanyu), 戯曲(Drama), 世界(sekai)

1. 머리말

이 논문에서는 재일코리안 고찬유의 희곡 <광명이여! 소생하라(光よ!甦れ)>에 그려진 1980년도 5·18 광주민주화 운동을 당시 한국 현대사의 '기록'으로서 가지는 의미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2017년 8월 2일에 개봉한 한국영화 <택시운전사>는 천만이 넘는 관객 수를 동원하면서 상당히 주목받았다. 이 영화는 2016년도 국민의 촛불시위에 이어진 대통령 탄핵 및 새로운 대통령 선출과 연속선상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내년 2018년 4월에는 일본에도 상영될 예정이다. 이 영화는 1980년 당시 독일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Jürgen Hinzpeter, 1937년 7월 6일 ~ 2016년 1월 25일)가 한국 내에서는 보도되지 못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참혹한 현장을 알리기 위해 광주에 직접 가서 영상을 찍었다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당시 이러한

* 전남대학교, 시간강사, 일본문화

외신기자들을 통해 외국에서는 비교적 광주의 실상을 제대로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택시운전사>가 한국에서 상당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필자는 이웃나라 일본에서 바라본 1980년 당시의 한국 상황을 연극으로 보여준 재일코리안 고찬유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1970~1980년대의 한국 정치사를 배경으로 희곡을 쓰면서 동시에 연극 공연까지도 성공시켰다. 한국에서 광주민주화운동을 다룬 연극은 1990년대 후반에서야 제작되어진 반면, 고찬유의 연극은 1980년 10월에 바로 제작되어졌다는 시의성에 더 큰 가치를 가졌음을 주목한다. 고찬유의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연극은 재일코리안 뿐만 아니라 일본인들에게까지도 많은 호응을 얻었으며, 특히 재일코리안들은 이 연극을 통해 조국의 발전을 위한 구심점을 만들기도 하였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고찬유에 대해 거의 알려지지 않아서 연구가 거의 전무하다.¹⁾ 그의 희곡 <광명이여! 소생하라>는 재일코리안 고찬유가 당시 일본에서 보도된 5·18에 관한 광주 영상자료와 한국 정치사에 관해 발간된 잡지 등을 통해서 한국어로 집필한 작품이다. 본 논문은 고찬유 희곡 <광명이여! 소생하라>에 반영된 역사적 사실의 의미에 주목하면서 그 당시의 희곡의 기초 자료로서 한국의 정치사를 작성한 인물과 재일코리안의 조국에 대한 염원을 고찰하고자 한다.

- 1) 재일코리안의 희곡연구는 최근에 정의신을 중심으로 재일코리안 2, 3세의 연구가 많다. 문경연(2012) 「재일한국인 극작가 정의신의 낯선 역사 재현-〈야끼니꾸 드래곤〉을 중심으로」 『한국극예술연구』38, 한국극예술학회, 정진세(2013) 「동시대 재일한인연극 연구 - 경계인의 형상화를 중심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과정 연극원 연극학과 연극과 전공 예술전문사 학위논문, 진주(2014) 「존재의 규명방식으로서의 기록-‘구별짓기’로 읽는 재일한인 극작가 정의신과 그의 작품들」 『국어문학』57, 국어문화회 등이 있다. 그리고 고찬유와 같이 한국어로 집필한 희곡은 주로 총련계의 재일조선문학예술가동맹(문예동)에서 활동한 작가들이다. 이러한 작가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백로라(2005) 「재일동포 한국어 극문학 연구」 『한중인문학연구』14, 한중인문학회, _____(2005) 「김지석 희곡에 나타난 재일동포의 정체성」 『한중인문학연구』15, 한중인문학회, _____(2006) 「재일동포 한국어 희곡에 나타난 주제문에 이론의 수용 양상과 ‘민족’이데올로기 - 서상각 희곡을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17, 한중인문학회 오현화(2009) 「재일조선인 희곡의 창작방법론 연구 - 김지석, 서상각, 허남기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42, 한국문화이론과 비평학회 최중화(2015) 「총련계 재일조선여성시의 리미널공간 연구- 문예동 주류시와의 대비를 중심으로-」 『국제한인문학연구』15, 국제한인문학회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고찬유의 희곡에 나타난 표현 기법을 이해하는데 토대가 되었다.

2. 광주민주화운동을 다룬 연극

2.1 한국의 광주민주화운동 연극

연극 <광명이여! 소생하라>는 일본에서 1980년 10월에 최초로 공연되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소재로 공연된 연극 중에서는 한국보다 훨씬 일찍 공연된 최초의 연극이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당시 한국에서는 교묘한 언론 통제는 물론 출판물까지 모두 스스로 검열하여야 하는 시대이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연극이 무대에 오른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차츰 시대가 바뀌어 민주화 운동의 성과에 힘입어 1990년을 지나오면서 2017년 현재까지 5·18 광주민주화운동관련 연극이 공연되고 있다.

현재 2017년의 한국의 정치적 상황은 이전의 정권들보다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연극에 주목할 수 있는 분위기이기도 하다. 다음의 표를 통해서 2017년까지 공연되고 있는 광주민주화운동 연극을 살펴보겠다.

<표 1> 한국의 광주민주화운동 연극

제목	일시(2017년)	장소	제작	초연
청실홍실	5/12 - 5/27 6월 - 11월	민들레 소극장	극단 토박이	1997
잠뽕	5/11 - 7/2	신도림 프라임 아트홀	극단 산	2004
충분히 애도되지 못한 슬픔	9/21-10/1	예술공간 오르다	창작집단 상상두육	2008
어머니 전상서 -애꾸눈 광대	10/17	광주광역시 시청 대강당	나라사랑 예술단	2012

위의 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7년에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연극이 초연인 경우보다도 6년째 공연하거나 길게는 20년째 공연하고 있다. 이는 지속적으로 연극을 통해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극단의 움직임임을 알 수 있다.

먼저, <청실홍실>은 1983년에 광주에서 창단된 극단 토박이가 공연한 작품이다. 극단 토박이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관련된 연극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우리 민족의 아픔을 다루는 연극들을 공연해 왔다. <청실홍실>은 주인공 김순덕이 어느 날 찾아온 남편 후배에게 1980년 5·18 당시의 남편을 회상하면

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김순덕의 남편은 당시 오월항쟁지도부 기획 부장으로 활동하였으나 고문을 받고 그 후유증으로 지금은 정신질환자이다. 이 작품은 1997년 초연이 되었으며 2017년까지 공연되고 있다.

<짬뽕>은 2004년의 초연으로 매년 5월 대학로 연극무대에서 현재 2017년까지 공연되고 있다. 이 연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주인공 만식이와 짬뽕배달을 가다가 검열하는 군인들과 시비가 붙어 일어났다는 엉뚱한 상상력으로 설정된 블랙코미디이다. 당시의 무거운 우리의 역사를 소시민들의 따뜻한 이야기로 풀어보고자 하였다.

<충분히 애도되지 못한 슬픔>은 3인조 자해 공갈단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저지당하는 블랙코미디이다. 이 연극 관계자는 “지난 정권, 문화 예술인에 대한 국가의 사상적 검열이 있었다. 이는 ‘현시대에 일어난 충격적 사건’이지만, 그 검열을 자행했던 사람들은 ‘청산되지 못한 과거로부터 온 자들’이었다”며 “2017년, 다시 민주주의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는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사를 본다면 광주는 충분히 애도하지 못한 슬픔으로 남아 있다”라고 공연 제목의 의미를 전했다.²⁾

<어머니 전상서-애꾸눈 광대>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액자식 구성으로 일제 강점기 위안부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 어린 나이에 시집 온 어머니와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인해 풍비박산 난 가족 이야기를 담아 강한 울림과 감동을 안겨주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지난 2012년 10회, 2013년 20회, 2014년 23회, 2015년 30회, 2016년 28회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공연되었다.³⁾

<표1>의 연극들에서 알 수 있듯이 1980년으로부터 거의 20년이 되어 1997년에 광주민주화운동에 관련된 연극이 공연되었다. 이러한 작품들의 대부분 서사구조는 주인공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과거로 회귀하면서 기억을 소환하는 형식으로 전개되어 간다. 주인공의 슬픔이 무엇 때문인가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며 광주민주화운동과 맞는 지점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러한 서사구조는 개인의 주관적 경험을 가지는 경향으로 인하여 객관적인 역사적 재현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앞에서 언급한 연극 중에는 당시 광주에 일어난 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2) 장기영 「“어떤 슬픔은 충분히 애도해도 부족하다”.... 연극 ‘충분히 애도되지 못한 슬픔’」 『문화뉴스』 2017. 8. 19.

3) 류형근 「5·18연극 ‘애꾸눈 광대’ 6일 국회서 공연」 『NEWSIS』 2017. 11. 1.

관객들에게 광주상황을 이해시켜 주고자 코믹하게 전개해 나가기도 한다. 이는 그동안의 기억의 소환 방식을 벗어나 새로운 상상력을 동원하면서 소민시적 체험을 통해 현장의 소리를 들려주는 방식이다. 이러한 서사구조는 기존의 광주민주화운동을 다룬 서사구조와는 차이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역시 객관적 역사적 재현의 한계는 있다.

한국에서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에 언론통제가 심했기 때문에 광주시민과 인근지역민들과 같이 직접 체험한 자 이외에는 진실을 쉽게 알 수 없었다. 연극들이 보여주는 서사구조와 역사적 재현의 한계는 아직도 한국에서 쉽게 치유되지 못한 문화예술분야의 상처일 수도 있다.

최근 당시의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일들이 또다시 진행되고 있다.⁴⁾ 이는 1980년의 당시 한국의 역사가 한국에서는 사실이 봉인되었다는 사실을 30년이 지나서 새삼 깨닫게 하는 일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그 당시의 외신들이 한국을 어떻게 보도하고 알렸는가에 대한 고찰과 함께 당시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국을 그린 문학적 작품에 나타난 역사적 사실의 구현이 지닌 가치를 찾고자 한다.

2.2 일본의 광주민주화운동 연극

일본에서는 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연극은 재일코리안에 의해 제작되어져 공연되었다. 재일코리안의 사회는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계)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특히, 희곡의 작품은 조총련계 작가들의 작품들이 한국어로 창작된 경우가 많다.⁵⁾ 다음 <표2>에서 보이는 광주민주화 운동의 희곡도 대부분 조총련계의 작가들의 작품들이다.

4) 광주일보에 의하면, 헬기 사격·전투기 출격 대기 등 ‘5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5·18 특조위는 집단 발포 명령자나 암매장 등은 대통령이 지시한 진상 규명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특조위 활동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되면 국방부나 정부에 추가 조사를 건의키로 해 지역민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5·18 당시 헬기 사격이나 암매장 사실 등은 시민들의 다양한 증언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5·18 헬기 사격·암매장 반드시 밝혀내야」 『광주일보』 2017. 9. 15.

5) 민단계는 일본사회에 빠르게 적응하는 것과 달리, 조총련계는 그곳을 조국이 통일되기 전까지 그들이 임시적으로 머물러야 할 공간으로 여기는 듯하다. 이들이 조선학교를 설립하여 모국어 교육과 역사 교육에 힘쓰는 것도 일본관의 민족적 ‘동화’를 거부하려는 태도와 무관하지 않다. 극문학 작품은 이러한 문제적 상황을 다루면서 일종의 해결책을 모색한다. 이들 작품은 일본과 한국을 극적 공간으로 선택하여 동포사회의 당면 문제나 한국의 정치적 혼란상을 다루고 있는데 전자가 일상적 리얼리티를 보여준다면, 후자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강하게 노출한다. 백로라(2005) 「재일동포 한국어 극문학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제14집, 이희문화사 p.429

〈표 2〉 재일코리안의 광주민주화 운동 희곡과 연극

작품	작가	연도	초연시기	극단
광명이여! 소생하라	고찬유	1980	1980. 10/24, 29	극단민예
응징	서상각	1983	공연 없음	
빛고을 파랑새 전설	김지석	1988	1988. 6.24-26	아랑3(삼)세
떠돌이의 모험	김지석	1989	1989. 8.16 -19	아랑3(삼)세

이 논문에서 다루는 <광명이여! 소생하라>는 고찬유가 1980년도에 희곡을 집필하고 직접 연극까지 연출하였다. 1983년 <응징>이라는 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희곡은 서상각의 작품이며 연극으로는 공연되지 않았다. 초창기 재일코리안 희곡은 공연보다는 읽히기 위한 레제 드라마적 성격을 주로 띠고 있어서, 배우들의 연기나 무대 미술과 같은 작품 외적인 요소보다는 대사를 비롯하여 등장인물의 심리와 감정, 극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나 전개를 유도하는 ‘상황당식 혁명연극’⁶⁾의 극적 형성화 방식을 다수 활용하였다. ⁷⁾ 그러나 이러한 표현기법은 객관적 역사기록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1987년 김지석은 재일코리안 2세로 광주민주화운동의 소식을 듣기 시작하면서 조국 즉 부모님의 고향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목한다. 그는 대학시절 <재연의 날>을 발표하고 이후에 이를 <빛고을 파랑새 전설>과 <떠돌이의 모험>으로 발전시킨다.⁸⁾ 이 두 작품 모두 공연되었다.

1980년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된 광주항쟁은 그에게 <빛고을파랑새전설>이라는 작품으로 광주의 정신과 한을 표현하였다. 한국의 광주민주화운동 연극이 많은 세월이 지나서야 제작될 수 있었지만, 일본에서

6) 초창기 재일코리안 희곡작가들은 북한의 ‘상황당식 혁명연극’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인민대중들에게 주체사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희곡의 대사 및 배우들의 연기, 무대 미술 및 음악효과 등을 강조하는 표현방식이다. 오현화(2009) 『재일조선인 희곡의 창작 방법론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42, 한국문탁이론과 비평학회, p.541

7) 오현화(2009) 앞의 책, p. 541

8) 백로라(2005) 『김지석 희곡에 나타난 재일동포의 정체성』 『한중인문학연구』15, 한중인문학회, p.496

는 대부분 1980년대에 제작되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그 당시의 재일코리안의 조국에 대한 의식이 고취되어 있었다는 점도 감지할 수 있다. 또한 재일코리안 한국어 문학은 재일코리안의 일본어 문학과 달리 조총련계 작가에 의해 창작되었기 때문에 복잡한 ‘재일’현실의 문제뿐만 아니라 특수한 정치이데올로기의 문제까지 거느리게 된다.⁹⁾

이러한 재일코리안의 한국어 희곡은 허구성보다는 현장의 소리를 더욱 사실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특징은 한국과는 표현방식에서 확연히 차이를 보인다. 재일코리안 한국어 문학연구에서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사실은 각각의 문학 텍스트가 북한이나 남한이 아닌 재일 사회의 현실 속에서 모국어와 민족에 대한 각별한 의식을 바탕으로 창작되고 수용되어 왔다는 점이다.¹⁰⁾ 따라서 재일코리안 한국어 연극은 앞에서 언급한 한국의 광주민주화운동 연극에서 나타난 역사적 한계를 극복하고 객관적이고 사실적 역사 기록으로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3. ‘기록’으로서 <광명이여! 소생하라>

3.1. 고찬유 희곡과 잡지 『세카이』

3.1.1. 고찬유의 희곡

한국에서 작가 고찬유는 재일코리안 문학가로서도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그는 1947년 6월 26일에 오사카(大阪市都島区)에서 태어난 재일코리안 2세이다. 1970년 3월에 일본에서 조선대학교(朝鮮大学校) 정치경제학부를 졸업하였으며, 1970년 4월에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在日本朝鮮文学芸術家同盟: 이하 문예동)에서 근무를 하였다.

그는 1983년에는 조선관계정보지 『상봉 サンボン (出逢い)』을 창간하였고, 1988년 조선관계월간지 『미래 ミレ(未来)』를 창간하였다. 1999년부터는 대학 강의를 하면서 현재는 논픽션작자이며 라이프영상 워크 대표(ライフ映像ワーク代表)와 자유 저널리스트클럽(自由ジャーナリストクラブ)이사를 맡고 있다. 또한 국제고려학회 회원(国際高麗学会会員)으로 민족교육네트워크(民族教育ネットワー

9) 백로라(2006) 앞의 책, p.266

10) 백로라(2006) 앞의 책, p.268

ク) 사무국에 소속되어 있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아메리카·코리아다운타운(アメリカ・コリアタウン)』, 『통일코리아 챔피언(統一コリアのチャンピオン)』, 『르포 재일 외국인(ルポ在日外国人)』, 『재일2세의 기억(在日二世の記憶)』 등이 있다.

고찬유는 1978년 12월에 창작극 『침묵(沈黙)』의 각본과 연출을 담당하면서 연극을 시작하였다. 그는 한국 현대 정치사에 관심을 가지며 광주민주화운동 뿐만 아니라 재일코리안 유학생 간첩조작 사건, 전태일 이야기 등 국가 폭력에 희생이 된 자들을 조명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였다. 그는 1987년 동시대회 곡집 『광명이여! 소생하라』의 책을 발간하였는데, 이 회곡집에 10년간의 작품인 「침묵(沈黙)」, 「광명이여! 소생하라」, 「내 넋을 불꽃에 비추어(我が魂を炎に照らし)」 세 편을 실었다. 그리고 그 외에 『불꽃(炎)』, 『뿌리 없는 풀(根無し草)』, 『아리랑 고개(アリラン峠)』를 집필하였다. 11)

그리고 그는 자신의 회곡을 바탕으로 1980년대부터 1시간 반에서 2시간미만의 비교적 대규모의 공연을 6편(상연총수 20회)정도 하였다. 또한 각종 재일코리안 운동단체의 주최로 40~50분 정도의 단편이 약 10편정도 공연되었다. 그리고 재공연을 포함하여 매년 두 세편씩 공연하였다. 규모의 크기에 따라 동원관객이 다르겠지만, 본 공연의 경우는 매회 천여 명 이상, 소공연의 경우에도 거의 5백여 명 이상의 관객이 동원되었다. 그의 연극 공연은 아마추어 연극으로서는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재일코리안 사회에 충분히 보여주었다.

이러한 고찬유의 연극은 예술적 공연보다는 민족의 사명감으로 조국의 현실을 교포사회에 알리고 나아가 조국을 상기시키고 조국의 발전을 염원하고자 하였다. 고찬유는 자신의 연극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나는 연극의 전문가가 아니다. 원래 영화에 관심이 있었던 나는 처음에 시나리오 공부부터 시작하여 시나 소설도 써 보긴 하였지만, 회곡을 손댄 것은 「침묵」이후이다. 또한 내가 각본 또는 연출을 담당할 전작품은 모두 아마추어 - 대부분이 연극을 실제로 본 적도 없었다-들만의 연출로 상연되었다. 따라서 우리들의 연극을 '예술'적 관점으로만 비평한다면 굉장한 문제점이 지적될 것이다.12)

11) 五月を記念する会(1987) 『同時代戯曲集 光よ! 甦れ』 プレーセンター, p.130

12) 五月を記念する会(1987) 앞의 책, p.130

위와 같이 고찬유가 자신이 언급한 바와 같이 연극의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희곡을 집필하고 연극 활동을 하였던 것은 당시 재일코리안 사회에서 연극은 가장 선동적이며 관객을 주목시키고 환기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연극의 내용이 대부분 한국의 정치적 비판을 다루었으므로 관객들도 공연예술로서의 가치보다는 한국의 역사의 단편적인 모습이지만 이를 이해하고 공감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 다루고자 하는 희곡 <광명이여! 소생하라>에 나타난 한국 정치 체제를 비판한 역사적 기술과 고찬유의 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희곡의 배경지식이 되었던 잡지와 언론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3.1.2. 고찬유의 배경 지식 『세카이(世界)』

고찬유의 희곡 <광명이여! 소생하라>는 1980년 10월 24일과 29일에 연극이 공연되었다. 이러한 이 희곡의 시의성은 현재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 고찬유가 희곡을 집필할 당시 한국의 소식과 작품배경의 자료 수집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당시 일본에서는 연일 사건의 상황이 TV와 신문에서 크게 보도되었다. 그 후 운동단체가 자료집이나 사진집을 발행하였고, 다큐멘터리 영화상영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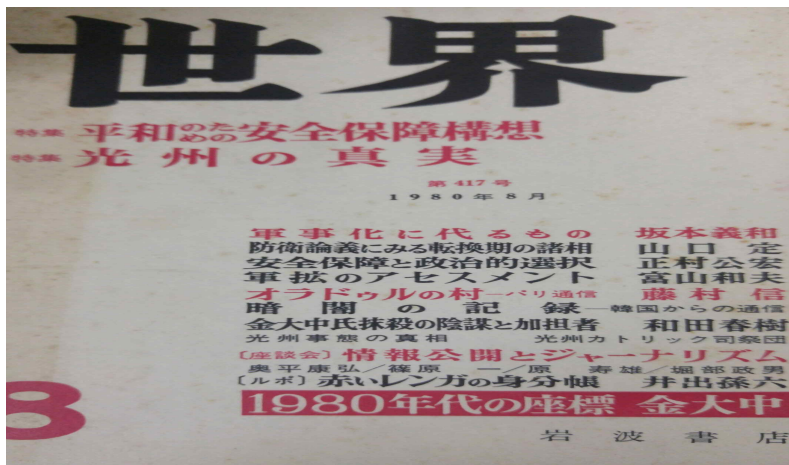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자료는 잡지 『세카이(世界)』에 1972년부터 연재되기 시작한 「한국으로부터 통신(韓国からの通信)」이었다. 집필자는 필명 ‘T·K생’으로, 나중에 스스로 ‘지명관(池明觀)’이라고 공개하였다.¹³⁾

위와 같이 『세카이』는 일본에 한국의 당시 정치적 상황을 알리는 역할을 하였다. 마침 최근 2017년 6월에 『세카이』를 출판한 이와나미 쇼텐(岩波書店)의 편집국 부장인 바바 기미히코(馬場公彦)가 한국을 방문하였다. 바바 부장은 한국의 2017년 6월 1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도서전에서의 강연을 시작으로 고려대와 한림대에서 강연을 하였다. 그 중 2017년 6월 14일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창립 60주년 기념 초청강연에서는 “이와나미쇼텐(岩波書店) 백년과 동아시아 지식교류-문고·신서·『世界』 그리고 앞으로”라는 주제

13) 고찬유는 2017년 9월 16일에 필자와의 이메일을 통해 언급하였다.

로 강연하였다. 이 강연에서 그는 일본 출판문화의 특징인 문고본 창간 배경과 『세카이』를 통한 이와나미쇼텐과 동아시아 교류 등에 관해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세카이』는 1945년 12월에 창간하여 문화와 대중을 연결하기 위한 종합 잡지로 나아가고자 하였으며, 평화와 사회정의 실현, 일본의 민주화, 아시아 민중광의 화해와 연대가 당시의 과제였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그는 『세카이』는 동북아시아를 서양이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스스로 자각하면서 서로 연대와 화합을 위한 취지로 출판하고자 하였다.¹⁴⁾

당시 한국의 1980년 5월의 상황이 『세카이』의 8월 제417호에 다음 <그림1>과 같이 실려 있었다. 한국에 관련된 기사는 광주가 특집으로 실렸으며 그 외의 한국관련 기사에서 당시 『세카이』가 바라보는 한국의 정치적 관심과 시선을 알 수 있었다.



<그림1> 『세카이』 1980년 8월 제147호에는 특집으로 「광주의 진상」을 다루고 있다.

세부적인 목차에는 ‘어둠의 기록-한국으로부터 통신’, ‘김대중말살의 음모와 가담자-와다 하루키’, ‘광주사태의 진상-광주카톨릭사제단’이 기록되어져 있다.¹⁵⁾

14) 김병규 「日잡지 ‘세카이’의 필자 ‘T·K生’은 지명관」 『연합뉴스』 2017. 6. 14.

15) 『세카이』에 ‘광주사태’라는 용어는 지금의 ‘광주민중화운동’과는 많은 의미의 차이를 두고 있다. 명칭에 대한 변천은 다음과 같다. 5·18은 처음 발발 때 계엄사에 의해 ‘무장폭동’, ‘난동’으로 규정되었다. 또 정부·여당에 의해 오랫동안 ‘광주사태’로 불려졌다. 같은 시기에 재야·민주진영에서는 ‘광주사태’, ‘광주민중항쟁’, ‘광주항쟁’, ‘광주의거’ 등의 명칭을 사용했다. 노태우 정부 출범 직후 구성된 ‘민주화합추진 위원회’(이하 민화위라 칭함)에서는 ‘광주민중화운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며, 이후 이 명칭은 정부의 공식적인 명칭으로 굳혀졌다. 최영태(2015) 『5·18항쟁의 명칭문제 -‘광주’와 ‘민중’이라는 용어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제15권 3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p.114

고찬유는 당시 이러한 잡지의 정보를 통해 희곡 집필과 연극의 각본과 연출을 담당하는 연극 활동을 하였다. 『세카이』 제147호에서는 「한국으로부터 통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칼럼에서도 한국의 정치적 상황들을 보도하고 있다. 그만큼 당시 일본사회에서도 한국에 대한 관심은 뜨거웠으며 고찬유의 연극에 대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였음을 알 수 있다.

3.1.3. 「한국으로부터의 통신」의 T·K생

「한국으로부터의 통신」은 『세카이』에 T·K생이라는 필명으로 실린 칼럼이다. 이 칼럼은 한국의 유신 이후 1973년부터 1988년까지 군부독재정권의 인권유린과 한국인의 민주화 열망을 세계에 알리고자 하였다. 「한국으로부터의 통신」은 1973년 5월호부터 1988년 3월호까지 한 호도 거르지 않고 176회나 계속되면서 한국 민주화운동의 실상을 세계에 알린 거의 유일한 창구였다. 전체 18,000여 장에 달하는 원고였다. 『세카이』지를 펴낸 출판사인 이와나미에서 네권의 책으로 묶어 냈을 만큼의 분량이다.¹⁶⁾ 「한국으로부터의 통신」은 한국 저항 지식인과 학생의 필독 칼럼으로 인식됐으며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해서는 ‘어둠의 기록’이라는 제목으로 학살의 실상을 전했다.¹⁷⁾

당시 실린 ‘어둠의 기록’ 내용은 1980년 6월 6일 발신으로 「아아 광주!(ああ 光州!)」, 「김대중씨의 생명은?(金大中氏の生命は?)」, 1980년 6월 18일 발신으로 「미국의 아프가니스탄(アメリカのアフガニスタン)」, 1980년 6월 22일 발신으로 「죽음에서 죽음으로(死から死へと)」라는 제목으로 3편의 글이 실려 있다.¹⁸⁾

6월 6일자는 증언을 중심으로 당시 광주 금남로의 상황을 생생히 전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03년도에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20여년이 지나서 「T·K생」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월간중앙』에 실린 그의 정치적 고백을 볼 수 있었다.

2003년 7월 26일자 조선·동아·중앙일보 등 주요 언론에 일제히 “내가 바로 T·K생이다.”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다. 주인공은 지명관(池明觀) 당시 한림대 한림과학원 석좌교수였다. 그로부터 사흘 뒤인 7월 29일 지명관은 민주화 운동기념사업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공개적으로 확인했다. 지명관

16) 「한국 지성과의 대화⑨ 우리 현대사의 한 전설을 만든 ‘T·K생’ 지명관」 『월간중앙』 2004. 6. 1.

17) 『연합뉴스』 2003. 7. 25. 앞의 책

18) T·K生 「暗闇の記録—韓国からの通信」 『世界』 1980年 8月 第417号 p.163

은 2003년 8월호 『세카이』지에 처음으로 이 사실을 밝혔다고 한다.

그는 “군부의 인권유린 현실과 한국국민의 민주화 열망을 어떻게 해서든 외부세계에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집필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박형규 목사나 김관석 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등이 일본에 들르거나 인편으로 통해 전하는 국내소식을 바탕으로 칼럼을 작성했다.¹⁹⁾

지명관은 자신의 위험을 감내하면서 언론 통제가 심했던 당시 한국의 감시를 피해가며 한국의 소식을 일본의 잡지를 통해서 알렸다. 이는 일본 사회에 많은 관심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재일코리안에게는 조국의 민주화에 대한 염원을 더욱더 고양시켰다. 이 뿐만 아니라 당시 한국에서도 몇몇 사람들에 의해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일본에서는 살펴보고 있다는 정보를 듣고 다음과 같은 움직임이 있었다.

1970~80년대 한국의 민주화운동 진영과 지식인 사회에는 참으로 기묘한 풍경화가 한 가지 있었다. 일본에서 발행되는 진보적 시사월간지 ‘세카이’(世界)지에 매달 연재되는 ‘한국으로부터의 통신’을 번역해 몰래 돌려보던 일이었다. ‘한국으로부터의 통신’에 실린 내용은 분명 한반도 남쪽 우리 땅에서 벌어진 민주화운동과 인권 탄압 등에 관한 소식이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은 국내 방송이나 신문·잡지를 통해서도 정작 한 줄도 접하지 못했다. 그런데 ‘한국으로부터의 통신’은 놀라울 정도로 생생했고, 정확했으며 또한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었다. 온 국민에게 장님과 귀머거리가 되기를 강요했던 군사정권의 폭압적 실상을 일본의 한 잡지를 통해만 알 수 있었던 당시의 현실은 바로 암울한 시대의 한 상징이었다. ²⁰⁾

위와 같이 지명관의 「한국으로부터 통신」은 일본사회에 한국을 알리는 역할만 아니라 한국에도 당시의 실상을 제대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절에 지명관의 통신은 현재의 한국현대사의 기록으로서 가치가 있으며, 이러한 가치는 고찬유를 통해 연극으로 전달되면서 훨씬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19) 『월간중앙』 2004년 6월 1일, 앞의 책

20) 『월간중앙』 2004. 6. 1. 앞의 책

3.2. <광명이여! 소생하라>에 나타난 역사의 기록

희곡 <광명이여! 소생하라>의 역사적 가치는 현재까지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진상규명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밝혀지고 있는 사실들이 희곡에 그대로 묘사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고찬유가 집필할 당시의 일본자료들과 희곡을 분석하면서 확인하고자 한다.

3.2.1. 희곡에 기록된 역사의 표현기법

재일코리안의 희곡문학은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이하 문예동)이 결성된 이후 ‘문예동’작가를 중심으로 전개된다.²¹⁾ 문예동의 활동가였던 고찬유의 희곡 또한 그 표현기법에 기인하였다. 현재 이러한 표현기법은 한국에서 묻혀 둔 역사를 그 당시의 문학작품에 생생한 기록으로 고스란히 남아 있다. 그의 희곡이 허구나 가상으로서가 아닌 사실적 역사로서 집필되었다는 점이 평가할 만하다.

재일코리안 한국어 희곡의 표현기법에는 내레이션과 같은 설화자 혹은 낭독자들이 등장하여 극효과를 높인다. 재일코리안 희곡의 설득적 대사를 통해 대화극 형식 외에도 설화자 또는 낭독자를 등장시켜 극의 흐름을 고조시키거나 작가의식을 드러내 보인다. 또한 관객들이 극에 몰입하고 지식적인 감흥을 느끼게 하기 위해 연결노래나 시를 삽입하기도 한다.²²⁾

희곡은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에 의해 총살당하는 이야기로 시작되어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진다. 이 연극에서 ‘민주’라는 등장인물이 주인공이면서 내레이션 역할을 하고 있다. ‘민주’라는 이름자체로 조국에 대한 염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일본의 자료 『세카이』를 배경으로 본다면 고찬유가 한국의 정치 지식 배경이 되는 T·K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민주’가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앞 상황을 설명하듯이 낭독을 다음과 같이 한다.

민주 (낭독) (중략)

(입말조로)나는 한사람의 시민으로서 <민주>란 이름으로 동료들과 함께 <민중의 웨침>이란 이 지하신문을 발행하여 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는 신문이나 잡지들 속에는 우리 신문에서

21) 오현화(2009) 앞의 책, p.533

22) 오현화(2009) 앞의 책, p.545

입수된 정보가 적지 않게 실려 있을 것입니다. 삼엄한 정보망의 감시아래서 비밀리에 신문을 발행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만 수많은 벗들의 헌신적인 협력을 받아 오늘까지 이렇게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일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협력해 준 동지들과 그리고 언제나 아낌없는 격려와 고무를 보내주신 독자 여러분들께 충심으로부터 감사를 드리는바입니다.

8·15 해방 후, 험난한 가시덤불길을 걷고 있는 우리 조국의 력사에 있어서 금번 사살사건은 민주화투쟁에서 중요한 갈림길로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의 가슴마다에는 일종의 안도감과 불안감이 서로 엉켜져 교차하고 있으며 그들은 새로운 권력으로 등장한 군부가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장안에는 오만가지 류언비어가 돌고 있습니다.²³⁾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이 작품은 재일코리안 한국어 작품이라는 것에 주목한다. 재일코리안 한국어 희곡은 선동적 명대사 구현과 함께 ‘민주’와 같은 투쟁적인 영웅이 등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특히 1965년 한일협정 체결에 의한 정치적·사회적 변화에 영향 하에서 재일코리안 사회가 민족주체성 혼란과 민족차별 등으로 혼란기를 겪게 된다. 따라서 혁명적 세계관으로 무장한 영웅적 인물은 조국의식과 사회주의 이념을 내세워 재일코리안 사회의 주체성 혼란을 불식시키고 남한의 정치현실을 비판하는데 가장 적절한 전형적 인물이 필요하였다.²⁴⁾

이 희곡에서도 ‘민주’라는 주인공을 통해서 남한의 정치 상황을 비판하고 투쟁적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희곡에서 민주가 ‘T·K생’을 의미한다면, <민중의 웨침>이라는 지하신문은 『세카이』의 「한국으로부터 통신」을 의미하는 듯하다. 이러한 희곡이 연극으로 공연되었을 때 효과가 극대화 되기를 기대한다. 다음은 고찬유가 1980년 10월에 초연된 연극을 촬영한 영상자료이다.²⁵⁾

23) 고찬유의 당시 공연대본. p.137

24) 오현화(2009) 앞의 책, p.539

25) 이 영상은 고찬유가 당시에 촬영한 자료를 필자에게 보내주었다.



<그림 2> 무대 위에서 노래를 통해 주제의식을 고취하고 있다.

<그림 3> 군인들이 시민들을 진압하고 있는 모습이다.

위의 <그림 2>와 같이 삼입 시나 노래를 통해 작가의 주제의식을 드러내는데, 이것 또한 설화자나 낭독자가 작품 속에서 보여주는 감정 과잉과 선동성을 동반한다.²⁶⁾ 이 연극 마지막에서는 모두 일어나 <그림2>와 같이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

<광명이여! 소생하라>

통곡하는 남녘 피바다의 거리여
몸부림치며 신음하는 원한 사무친 도시여
꽃은 시들고 못새들도 어디로 사라지고
빛발마저 빼앗긴 암흑의 땅 남녘이여
원썩들의 총칼아래 터갈라진 땅이건만
흙냄새 향기로운 여기는 우리의 고장
새봄이 오면 차디찬 얼음장도 풀리고
눈석이 흘러내려 논과 들을 적시리라
겨레들의 피가 고인 항쟁의 거리마다
새 세상 알리는 새싹들이 움트리라
어둠을 헤가르며 눈부시게 빛발쳐라
광명이여 광명이여 소생하라 소생하라
쓰러져도 쓰러져도 일어나 다시 일어나

26) 오현화(2009) 앞의 책, p.549

세상만물이 소생하는 통일의 서광을 맞이하라
 쓰러져도 쓰러져도 일어나 다시 일어나
 조국통일의 서광을 삼천리강산에 맞으리라 아--(27)

이 노래는 광주를 기리며 민주화를 억압하는 군정부를 비판하는 노래이다. 당시 한국을 지켜보고 있는 재일코리안의 조국에 대한 염원은 한국의 민주화 이면서 최종적으로는 조국의 통일이었음을 이 노래는 시사하고 있다. <광명 이여! 소생하라>는 1980년 10월에 초연했던 만큼, 그 상황들에 대한 묘사나 설명으로 거론 되는 등장인물들은 훨씬 생생하게 전달되었다. 또한 문예동에서 활동한 고찬유의 희곡은 표현기법이 훨씬 선동적이었으며 연극으로는 더욱 표출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3.2.2. 사실적 근거로서 기록

고찬유의 희곡에서 1980년 5월의 광주의 이야기를 실제 사실과 전달된 정보, 그리고 희곡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가를 분석해 보겠다.

먼저 1980년 10월 『세카이』의 「한국으로부터의 통신」에 6월 6일자 발신한 기록 중 ‘어둠의 기록’이라는 제목의 첫 장에 광주의 현장을 다음과 같이 전한다.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한 경찰간부는 확성기로 충장로에 서있는 시민들을 향해서 ‘모두들 집으로 돌아가 주세요! 군인들 손에 걸리면 죽습니다’라고 소리쳤다. 그 목소리는 참을 수 없는 울먹임으로 바뀌고 있었다.²⁷⁾

「한국으로부터의 통신」에서는 광주 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울림이라는 것을 시사하며 첫 기사로 다루었다. 고찬유는 이러한 사실을 희곡에서 다음과 같이 대사를 설정하고 극적효과를 살린다.

경 관 : (달려나와) 학생들은 온순한 시위행진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하지 않아.

지휘관 : 시끄러워, 너도 데모대 측이냐.

(충칼로 찌른다)

경 관 : 시민 여러분! 제발 도망쳐 주세요. 군인에게 잡히면 죽습니다.

△ 지휘관 경관을 찢러 죽인다.²⁹⁾

27) 고찬유 공연대본 p.157

28) 『세계』 앞의 책, p.163

29) 고찬유 공연대본 p.152

희곡에서는 앞 뒤 상황을 설정하여 「한국으로부터 통신」에 실린 경관의 이야기를 실렸다. 이 사실은 한국에서는 2000년대로 들어와서야 당시 전남경찰청 국장이었던 안병하라는 것을 밝혔다. 이에 관련되어 조선일보는 “1980년 5·18 당시 신군부는 전남 치안을 총괄하는 안병하 전남경찰국장(경무관)에게 발포 명령을 내렸다. 광주 거리로 뛰쳐나온 시위대를 향해 총구를 겨누라는 것이었다. 6·25 때 전공을 세워 무공훈장을 받았던 군 출신인 안 경무관은 ‘시민을 지키는 경찰이 그럴 수 없다’며 명령을 거부했다. 5월 26일 치안본부에 들어간 안 경무관은 ‘직무 유기 및 지휘 포기 혐의’로 보안사로 끌려가 여드레 동안 갖은 고문을 당했다. 6월 2일 의원(依願)면직당하고 귀가해 아내와 세 아들 앞에서 쓰러졌다. 신부전증, 쓸개염 등으로 8년 동안 투병하다 1988년 혈액 투석 도중 숨졌다.”³⁰⁾고 보도하였다.

최근 한국정치 분위기 속에서 전남경찰청의 진상조사를 통해 밝혀진 고 안병하 국장은 계속 조명되고 있다. 그의 인권존중과 시민보호의 자세가 모든 경찰의 귀감이 된다고 인정해 2017년 올해의 경찰영웅으로 선정하고, 인권 경찰의 표상으로 삼아 오래도록 기리기 위해 추모홍상을 제작했다.³¹⁾ 1980년에 일본으로 전달된 한국의 상황이 희곡에 그대로 반영되었으며, 그러한 사실이 한국에서는 뒤늦게 밝혀졌음을 알 수 있는 예이다.

『세카이』의 편집부는 「광주사태-두 개의 일지」에서 “5월 18일부터 한국 광주시를 덮친 폭풍의 실태는 한국정부의 엄격한 언론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상세하게 알지 못한다. 객관적인 조사단에 의한 보고는 기대되지만, 여기에 소개하는 것은 광주시의 목격자에 의한 기록이다. 하나는 광주시의 보도관계자가 작성한 것이며, 하나는 카톨릭 교회 측에 의한 것이다.”³²⁾라고 밝히고 있다. 이 일지는 날짜와 시간별로 광주시의 보도관계자와 카톨릭 교회 관계자의 증언이 두 개로 나뉘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 중 광주시 보도관계자의 일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헬리콥터가 등장하는 내용이 나온다.

18일(일) 계엄확대실시

(중략)

30) 조홍복 「'5·18 발포 거부' 故 안병하 경무관 홍상제막식」 『조선일보』 2017. 11. 23

31) 김대원 「전남경찰, 故 안병하 경무관 추모 인권존중 몸소 실천, 경찰에 귀감...추모 홍상제작으로 뜻 기려」 『프레시안 뉴스』, 2017.11.22.

32) 『세계』 앞의 책, p.186

15시 30분 이후 헬리콥터에서 공수부대 17시 00분까지 무차별진압, 금남로에 서 100여명연행, 계엄분소, 통행금지를 밤 9시까지로 단축.³³⁾
(중략)

고찬유는 다음과 같이 위와 같은 사실을 희곡으로 묘사하였다.

구호 유신헌법을 철폐하라!

비상계엄령을 해제하라!

전두환은 즉시 퇴진하라!

△헬리콥터 소리 다가온다.

순철 : 저건<검은 베레>이다.

학생2 : <검은 베레>?

순철 : 월남 전쟁에서 갖은 참혹한 행위를 한 특전단공정부대요.³⁴⁾

이와 관련되어 한국에서는 당시 광주 진압과정에서 헬기 사격의 증언들은 많이 나오고 있지만 논쟁이 많다. 그러나 최근 『세카이』와는 날짜가 다르지만 다음과 같이 보도 되었다.

광주광역시는 1980년 5·18 당시 전일빌딩에 대한 헬기 사격이 도청진압 작전이 전개된 5월 27일 새벽 4시부터 5시 30분 사이 61항공대 202, 203대대 소속 UH-1H기동헬기에 의해 자행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³⁵⁾

이러한 사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최근 2017년의 일이며, 아직도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이 진행 중에 있다. 다음은 광주민주화 운동에 관련되어 『세카이』는 왜 광주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도하고 있다. 이에 관련된 기사를 살펴 보겠다.

김대중씨의 생명은?

광주를 뿌리째 뽑아서 전국 국민에게 재기할 수 없도록 충격을 주려고 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그들이 사전에 계획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광주를 선택한 것은 김대중씨를 함정에 빠지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전라도민이 경상도민에게 악감정을 폭발하게 했다는 식으로 광주를 고립시키려고 했다. ³⁶⁾

33) 『世界』 앞의 책, p.186

34) 고찬유 공연대본 p.152

35) 이지원 「전일빌딩 등 5·18 헬기 사격의 진실」 『시사매거진』 2017. 5. 15.

『세카이』는 김대중에 대한 관심이 높았었고 여러 차례 김대중 관련 기사를 1970-80년대에 계속 실었다. 희곡에서도 위의 내용을 반영한 이야기가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영민 :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해보면 놈들이 벌써 전부터 광주를 습격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네. 광주지방을 선택한 것은 전라도 출신인 김대중 씨를 궁지에 몰아넣기 위한 것이요.³⁷⁾

『세카이』에는 「한국으로부터의 통신」 뿐만 아니라 일본인들의 한국 정치의 비판이 실려 있다. 인터넷이 없었던 그 당시에는 한국에서는 언론통제가 철저하였기에 봉쇄된 역사 속에서 살았었다. 재일코리안은 일본이라는 지정학적 위치에서 외신언론을 통해서 한국을 직시하면서 재일코리안 사회에서 서로 공감하며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 염원하였던 것을 고찬유의 희곡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조총련계의 고찬유가 가지는 희곡의 표현기법이 한국에서는 낯설고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오히려 역사를 그대로 반영한 서사와 시의성은 우리에게 충분한 의미를 주고 있다.

4. <광명이여! 소생하라>의 공연과 그 의미

1980년 당시 한국에서 민주화운동과 군사독재정권과의 투쟁은 일본의 매스컴에서 연일 크게 보도되었기 때문에 재일코리안들 사이에서도 다수의 집회가 열렸다. 재일코리안은 당시 상황에서 조국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이러한 관심은 조국의 민주화와 통일에 대한 염원으로 연동되었다. 고찬유 또한 조국에 대하여 “나는 문예동에 있었습시다만, 이념적으로는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마음속에서 지지하였다고 할 수 있지요. 그러한 기운 속에서 많은 동포와 일본인이 박정희 암살사건부터 광주민주화 운동에 이르기까지 중대한 관심을 가진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요.”³⁸⁾라고 언급하였다. 고찬유는 재일코리안들의 조국인식을 연극 공연을 통해 더욱 고양시켰다.

36) 『世界』 앞의 책, p. 168

37) 五月を記念する会(1987) 앞의 책, p.153

38) 五月を記念する会(1987) 앞의 책, p.153

고찬유 연극의 공연과 반응에 대해서 연출가 겸 배우인 요네쿠라 마사카네(米倉齊加年)는 다음과 이야기 한다. “초연은 1980년 10월 24일과 10월 29일에 조청(朝靑)동경도본부의 주최로 상연되었으며, 좌석이 천 몇 백 명에 가까운 대홀에 입석관객까지 초만원을 이루었습니다. TV나 신문에서도 크게 소개되었으며, 그 후 12월 5일에는 재일본조선유학생동맹(유학동) 오사카 지방본부의 주최로 오사카 학생의 연출로 상연되었습니다. 이 때 고찬유가 1개월간 오사카에 가서 직접 연출하였습니다. 출연자들은 연습과정에서 광주민주화 운동에 대한 생각을 깊이 토론하며, 무대 막이 내리는 순간에는 전원이 울었습니다. 무대에 관계한 청년들이나 관객들에게는 매우 큰 감동과 문제의식을 주었습니다.”³⁹⁾ 1980년 재일코리안 고찬유의 희곡은 일본에서 성공을 이루었다.

이는 성공으로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밖에서 조국의 민주화를 염원하고 있는 재일코리안의 바람을 표출하였다. 그 당시 한국에서는 언론 통제로 인해 전혀 무지한 상태로 있었을 시기에 세계 다른 어디에선가 특히 재일코리안이 사는 일본에서는 이처럼 잔혹한 한국의 현실에 대해 메시지를 생생하게 보내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찬유의 희곡이 현재 한국에서 밝혀지고 있는 진상 규명에 매우 가까운 사실을 바탕으로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은 놀라운 일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고찬유의 희곡과 연극을 통한 한국의 역사를 기록으로서 가치를 밝히고자 하였다.

【참고문헌】

* 기본 자료

고찬유 <광명이어! 소생하라> 공연대본 10월 24일, 29일, 조청(朝靑)동경도본부 月を記念する会(1987) 『同時代戯曲集 光よ! 甦れ』 プレ-センター
DVD <광명이어! 소생하라> 1980년 공연 영상

* 연구 논저 및 잡지, 기사

백로라(2005) 「재일동포 한국어 극문학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제14집, 이회문화사, p.429
_____(2005) 「김지석 희곡에 나타난 재일동포의 정체성」 『한중인문학연구』15, 한중인문학회, p.496
_____(2006) 「재일동포 한국어 희곡에 나타난 주체문에 이론의 수용 양상과 ‘민족’이데올로기 - 서 각 희곡을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17, 한중인문학회, pp.266-268
오현화(2009) 「재일조선인 희곡의 창작방법론 연구 - 김지석, 서상각, 허남기의 작품을 중심으로-」 『

39) 五月を記念する会(1987) 앞의 책, p.153

한국문화이론과 비평』42, 한국문화이론과 비평학회, pp.533-549

최영태(2015) 「5·18항쟁의 명칭문제 -‘광주’와 ‘민중’이라는 용어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제15권 3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p.114

최종화(2015) 「총련계 재일조선여성시의 리미널공간 연구- 문예동 주류시와의 대비를 중심으로-, 『국제한인문학연구』15, 국제한인문화회 『세계』 1980年 8月 第417号, 岩波書店 pp.163-205

「한국 지성과의 대화⑨ 우리 현대사의 한 전설을 만든 ‘T·K생’ 지명관, 『월간중앙』 2004. 6. 1. www.biznmedia.com/news/articleView.html?idxno=2721(검색일 2017. 11. 23.)

김영진 「<택시운전사>의 역사적 허구가 동조된 이유, 『씨네21』 2017. 8. 22. http://www.cine21.com/news/view/?idx=6&mag_id=87995(검색일 2017. 11. 20.)

「5·18 헬기 사격·암매장 반드시 밝혀내야, 『광주일보』 2017. 9. 15. <http://www.kwangju.co.kr/article.asp?aid=1505401200613577074>(검색일 2017. 11. 23.)

김병규 「日잡지 '세카이'의 필자 'T·K生'은 지명관, 『연합뉴스』 2003. 7. 25. <http://v.media.daum.net/v/20030725082629735?f=o>(검색일 2017. 11. 20.)

「전남경찰, 故 안병하 경무관 추모 인권존중 몸소 실천, 경찰에 귀감...추모 흉상제작으로 뜻 기려, 『프레시안 뉴스』, 2017. 11. 22.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76941&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검색일 2017. 12. 10.)

「5·18 헬기 사격·암매장 반드시 밝혀내야, 『광주일보』 2017. 9. 15.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505401200613577074>(검색일 2017. 12. 1.)

류형근 「5·18연극 '애꾸눈 광대' 6일 국회서 공연, 『NEWSIS』 2017. 11. 1.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101_0000135393&cID=10809&pID=10800(검색일 2017. 11. 30.)

이지원 「전일빌딩 등 5·18 헬기 사격의 진실, 『시사매거진』 2017. 5. 15. <http://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692>(검색일 2017. 12. 2.)

장기영 「“어떤 슬픔은 충분히 애도해도 부족하다”... 연극 ‘충분히 애도되지 못한 슬픔’ 『문화뉴스』 2017. 8. 19. <http://www.munhw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2853> (검색일 2017. 12. 3.)

조홍복 「'5·18 발포 거부' 故 안병하 경무관 흉상제막식, 『조선일보』 2017. 11. 2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23/2017112300295.html(검색일 2017. 12. 2.)

논문 투고 일자 : 2018. 01. 04.
논문 심사 일자 : 2018. 01. 31.
게재 확정 일자 : 2018. 02. 05.

 <要旨>

 在日コリアンが眺めた光州民主化運動
 —戯曲<光よ!甦れ>を中心に—

朱蕙貞

この論文では在日コリアン高賛侑の戯曲<光よ!甦れ>に描かれた1980年の5・18光州民主化運動を、当時の韓国現代史の‘記録’としてその意味を考察する。高賛侑の演劇は1980年10月に、光州民主化運動が起きた直後に製作されたという時宜性に価値を置くことができる。高賛侑の光州民主化運動の演劇は在日コリアンだけでなく、日本人にまで好評を得ており、特に在日コリアンはこの演劇を通じて祖国のための求心点になったこともある。しかし、韓国ではほとんど高賛侑について知られていないため、研究がほとんど皆無だ。彼の戯曲<光よ!甦れ>は、在日コリアン高賛侑が当時に日本で報道された5・18についての光州映像資料や韓国政治史に関して発刊された雑誌などを通じて韓国語で執筆された作品だ。本論文は、戯曲<光よ!甦れ>に反映された歴史的事実に注目し、その当時の戯曲の基礎資料として韓国の政治史を作成した人物と在日コリアンの祖国に対する念願を考察した。

 A Study of the Gwangju Democracy Movement as Seen through the Eyes of
 Koreans Living in Japan
 — Focus on a Drama titled “Hope! Revive” (光よ!甦れ)—

Joo, Hye-Jeong

This study examined the May 18 1980 Gwangju Democracy Movement in terms of the meaning of records on Korean modern history depicted in “Hope! Revive,” a drama written by Go Chan-Yoo, a Korean living in Japan. Go Chan-Yoo’s drama about the Gwangju Democracy Movement had value when it was created in October 1980, immediately following the Movement. The drama received positive feedback from both the Japanese and Koreans living in Japan; Koreans living in Japan, especially, this drama represented their nation.

However, there were only a few studies on Go Chan-Yoo, as he was hardly known in Korea. His drama “Hope! Revive” (光よ!甦れ) was written in Korean based on videos of the May 18 Gwangju reported in Japan at the time, and magazines that published Korean political history. This study examined the individuals who wrote about Korean political history, and the desires of Koreans living in Japan, which served as the basic materials for the drama, with a focus on the historical facts reflected in “Hope! Revive.”